

# 금융 Weekly Insight

이제 초점은 종전 이후의 회복으로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6월 셋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전주 은행, 증권은 KOSPI 대비 언더퍼폼. 보험 업종만이 상승세 시현.
- 스페이스 X IPO가 성사된 만큼, 관련 수급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높아진 가운데, 이제 미국-이란간 종전 합의에 따른 이후 회복에 초점 필요. 즉, 지정학 리스크 완화가 물가, 금리 등 매크로 불확실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금융업종 접근 필요.
- 다만, 여전히 보유 자산, 특정 테마 등으로 종목 간 밸류에이션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선별적 종목 선정이 중요한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 금융 Overview

- 은행 - 펀더멘털은 순항 예상. 결국 Valuation 회복 관건은 다시 돌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은행주는 2.9% 하락, 여전히 은행 PBR은 1배를 쉽게 넘기지 못하는 모습. 사실 최근 은행 업황 관련 뉴스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판단. 5월 중 은행의 대출은 기업과 가계 공히 증가하였고, 이들의 대출 수요가 모두 늘어남에 따라 은행은 가격 경쟁의 니즈가 낮으며, 이들 대출을 위한 자금 조달은 기업들의 저원가성 수신 중심으로 충당된 만큼, 은행은 대출 성장과 NIM 회복 모두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여기에 증시 거래대금 증가까지 감안할 때, 비은행 부문도 증권을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 개선을 기대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띄는 이유 중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여부 및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간 종전 합의가 도출된 만큼, 향후 이에 따른 매크로 환경의 개선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기여 기대.
- 증권 - 고베타 되돌림 지속: 증권 업종 주가는 w-w 3.4% 하락하며, 금융업종 중 가장 부진. 증권업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증시 정체 또는 변동성 확대 시, KOSPI 지수를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결국 추가적인 지수 및 거래대금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약화된 영향으로 판단. 다만 양호한 거래대금 환경 및 2분기 실적 기대감 등을 감안할 때, 종전 합의 등 Risk-off 국면에서는 높은 상승 탄력성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전망. 구조적 머니무브 등 장기 관점 투자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현 상황에서의 비중확대는 타당한 국면으로 판단.
- 보험 - 방어주 매력 + 실손 손해율 개선 기대: 보험 업종은 KOSPI 지수를 아웃퍼폼하며 금융 업종 내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시현. 증시 조정 국면에서 내수 중심 사업 구조에 따른 방어주 성격 부각된 데 더해,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확정에 따른 실손 손해율 개선 기대가 손보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금주에는 종전 합의 등 Risk-off 기대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기존 로직보다는 보유 자산 가치 부각 등 업종 외 이슈가 주가 방향성의 향방을 가를 전망.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b>(6/8) 고객자산가 증가에 PB문턱 상향하는 은행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권이 PB 문턱을 상향하고 있음. KB의 경우 PB센터 이용 기준을 현재 금융자산 3억원 이상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이는 고객자산가가 늘어난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임.</li> <li>- 고객자산가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을 lock-in하겠다는 계획도 보유. KB는 더 퍼스트 포럼을, 하나은행은 하나 머니쇼를 개최하는 등 정보 제공과 인맥 구축 기회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li> </ul>	<p><b>고객 자산가 segment 및 서비스 세분화:</b> 고객 자산가 층이 두터워짐에 따라, 또한 그 안에서의 고객 계층이 보다 세분화됨에 따라 고객의 demand 또한 다양화될 수밖에 없음. 이에 기존의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은 자칫하면 수익 기여도가 큰 초고액 자산가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은 segment의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p> <p><b>PB 문턱의 상향 - 한정된 자원 vs 고객 수의 증가:</b> 추가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고객자산가의 수 또한 빠르게 증가. 문제는 이들을 응대할 전문 인력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에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인력의 allocation도 고려할 수밖에 없음.</p> <p><b>관련 1. Mass Affluent:</b>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의 일차적 고민은 빠르게 증가하는 대중 부유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 금융자산으로만 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기 시작한 이들 자산가들을 기존의 오프라인 인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 하지만,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이를 통한 성장 여력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리가 미래의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강화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p> <p><b>관련 2.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서비스 강화:</b> 은행들이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회사만의 차별화된 역량인가에 대한 고민은 존재. 결국, 다른 금융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 및 이익 성공에 대한 Trackrecord 확보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p>
	<p><b>(6/8) 은행 출장소 증가로 영업점 수 유지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은행들이 일반 지점을 줄이되 출장소를 늘리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점포망을 재편 중.</li> <li>- 출장소는 독립된 영업점이 아닌, 인근 지점에 소속된 보조 영업 시설로 분류. 단순한 금융 업무만 처리가 가능해 점포 인력이나 규모가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즉, 은행 입장에서는 출장소로의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 구조.</li> <li>- 출장소 전환 이유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가 고객층 및 지역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강화해 왔음. 금융당국은 영업점을 통계상 지점과 동일한 독립 점포로 취급함에 따라 은행들이 출장소로의 전환에 나서는 것이라 보고.</li> </ul>	<p><b>출장소로의 전환 -일종의 과도기적 점포 방식:</b> 실제로 은행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내방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 이는 대부분의 금융 기능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 다만, 상대적으로 모바일/온라인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점포의 기능이 분명 필요.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높아지는 상황. 결국, 이에 대한 절충점으로 출장소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 하지만, 이 또한 과도기적 점포 방식일 수 있다고 판단. 1) 모바일 금융 또한 음성 인식 등을 통해 보다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2) AI, 더 나아가 Agentic AI가 도입될 경우, 전통적인 금융사와 고객 간의 접점은 더욱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p> <p><b>결국 과거의 틀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고객과의 접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b> 결국 고객과의 접점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 결국 이 고민의 핵심은 접점의 변화가 고객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채널을 통해 고객 Lock-in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가일 것.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와 관련된 적합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p>
	<p><b>(6/9) 금융위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 다음 달 공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는 은행권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 체계를 다음 달 포용금융 추진단 회의에서 공개할 계획. 이와 관련한 초안 일부가 오는 17일 킥오프 회의에서 공유될 예정.</li> <li>- 금융위는 성적에 따라 은행을 차등화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 일례로, 포용 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평가하고 페널티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 출연료가 증가, 우수한 은행은 감면하는 구조가 가능.</li> <li>- 참고로,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은 올해 3,818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1,345억원 증가.</li> </ul>	<p><b>포용금융 강화 - 순기능의 강화, 모럴 해저드의 방지가 결국 관건:</b> 포용금융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 판단. 다만, 이 과정에서 언제나 걸림돌로 제기되는 것은 모럴 해저드. 즉, 선량하게 적정 부채를 관리하고,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국가에서 해결해준다는 방식의 모럴 해저드가 만연하게 될 경우, 이는 사회 문제와 금융사의 부실 증가를 야기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결국, 이러한 모럴 해저드를 어떻게 방지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p> <p><b>포용금융 필요 계층에 대한 지원 - 민간, 그리고 금융의 한계도 고민 필요:</b> 궁극적으로 포용 금융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민간, 그것도 금융사들만이 부담하는 구조는 한계도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결국, 이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금융의 기능도 분명 중요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뒷받침과 정부 재정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p>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b>(6/9) 높은 환율 변동성 - 은행의 대출 여력 축소 야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들어 원화의 하루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대로 상승. 올해 달러당 원화 값의 일일 평균변동 폭은 하루 평균 8.44원으로 09년 9.3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참고로 작년 연간 평균 변동폭은 6.11원.</li> <li>- 문제는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이 실물 경제 자금 공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이는 환율 상승 시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자본적립 부담이 커지기 때문. 참고로, 환율이 10원 상승 시 CET-1 비율은 1~2bp 하락.</li> </ul>	<p><b>문제는 선제적 대응 부담:</b> 환율이 상승할 경우 CET-1비율은 하락하고, 이에 대출 여력도 축소된다는 사실은 이미 상당 수의 은행주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안. 다만, 문제는 높은 변동성과 낮은 예측 가능성. 결국, 이에 은행들은 환율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 여력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 가령, 환율이 이번 분기에 낮아지더라도 다음 분기에 다시 오를 지도 모른다는 고민 하에서 쉽게 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p> <p><b>다만, 환율 상승에 따른 CET-1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b> 다만, 과거와 같이 환율 상승에 따른 CET-1 비율이 급락하는 양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이미 은행들은 지난 수 개 분기에 걸쳐 RWA 관리를 통해 CET-1 비율을 관리하는 역량을 직접 시험한 바 있음. 결국, 은행의 대출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나, 은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CET-1 비율 훼손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은행주 접근이 필요.</p>
	<p><b>(6/11) 기업, 결국 은행에 자금 의존도 증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자금 조달 창구가 회사채와 증시 양방향에서 동시에 막히고 있음. 회사채는 고금리로 발행 부담이 커졌고, IPO는 상장심사 강화와 중복상장 규제 부담에 더욱 위축. 유상증자 또한 주주 가치 희석 논란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로 쉽지 않은 선택.</li> <li>- 결국,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자금조달의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 불가피. 특히,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 은행이 기업 대출에 우호적인 만큼, 금리 측면에서도 회사채보다 오히려 유리.</li> </ul>	<p><b>은행의 생산적 금융 강화에 있어 유리한 환경:</b> 현재의 환경은 은행의 생산적 금융 강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라 판단. 통상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용이 보다 낮은 만큼,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금년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 더 나아가, 높은 수효는 은행들로 하여금 금리 경쟁에 대한 부담 또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p> <p><b>관건은 우량한 고객의 Lock-in:</b> 기업금융도 개인금융과 동일한 구조. 결국, 이와 같은 환경에서 유지된 우량한 고객들을 어떻게 Lock-in시킬 수 있는가가 핵심. 충분한 Lock-in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우량 기업은 환경 변화 혹은 다른 은행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보고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 결국, 핵심은 대출이라는 은행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기반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이들과의 부수업무를 확대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거래 은행으로부터 단순 금리 혜택만이 아닌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장기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될 것이라 판단.</p>
	<p><b>(6/11) 고객 연봉자 마통 한도 축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에 따르면 5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9.3조원 증가. 이는 전월 3.5조원 대비 증가 폭이 세 배 수준으로 커진 것이며 25년 8월 9.8조원 이후 최대 규모. 주담대는 5.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기타 대출이 2조원 감소에서 5.3조원 증가로 바뀐 것.</li> <li>- 이에 은행권은 고객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 결정. 마통 등 한도대출 중심 신용대출이 급증한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부터 조이겠다는 것.</li> <li>- 은행권은 이달 고객 연봉자의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전망. 차주의 소득, 직장,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용대출을 정하는데, 연소득 1억 원 안팎이 사실상 관리 기준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 즉, 고소득자의 신규 마통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소득대비 한도 인정 비율을 고소득자에게는 50~70%만 적용하는 방식 등이 고려 중.</li> </ul>	<p><b>5월 가계 신용 대출 가파른 증가:</b> 5월 주담대 증가는 다주택자 과세 이슈로 인한 거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일시적 현상이라 판단. 다만, 5월 중 드러난 높은 주가 상승 및 이 과정에서 높은 주가 변동성, 그리고 가계의 신용대출 증가는 분명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 실제로, 지난 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국내 증시의 Re-rating 속에서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이 기여한 부분은 미미했던 점을 감안하면, 5월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충분히 이례적이라 판단.</p> <p><b>건전성과는 다소 거리 필요:</b> 다만, 5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해석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재 정책의 초점 또한 고객 연봉자의 마통 한도 축소. 즉,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상대적으로 거액으로 받을 수 있는 고객군은 고객 연봉자 혹은 전문직군 등 상환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 초점 필요.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경우, 이에 따른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전적인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p>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b>(6/12) 5월 은행 대출은 가계 기업 동반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가계대출 증가와 더불어 기업대출 또한 견조한 증가세 시현. 5월 기업대출 증가 폭은 10.6조원으로 4월 10.7조원과 유사.</li> <li>- 한편, 수신은 5월 48.8조원 증가하며 4월 6.8조원 감소대비 큰 폭으로 증가세 전환. 이는 기업들의 대기성 자금 유입에 따른 것.</li> </ul>	<p><b>은행 대출 성장세 우호적:</b> 은행의 대출 성장세는 5월에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견조한 성장이 이뤄진 점은 긍정적. 더 나아가 시중 금리 상승에 따른 NIM 회복이 이어질 전망이다 만큼, 은행들의 2Q 이자이익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p> <p><b>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신 증가 - 핵심은 기업 자금:</b> 일각에서는 5월 중 나타난 증시 급등 속에서 개인들의 수신 인출로 인해 은행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그러나, 5월 중 드러난 것은 수신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를 견인한 것은 풍부한 기업들의 자금. 결국, 가계 부문에서의 수신 이탈은 가능하지만, 이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기업 자금이 들어오고 있음에 초점 필요. 그리고, 이들 자금이 저원가성 수신으로 유입됨에 따라 은행들은 마진 부문에서도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기대 가능.</p>
증권	<p><b>(6/11) '물러코스피' 변동성 폭발...예탁금 나홀 새 12조 이탈·빚투 38조 사상 최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피가 주중 8,000선 안착 후 6월 8일 장중 8.8% 급락하며 서킷브레이크 발생.</li> <li>- 미국 금리 인상 전망·중동전쟁 종전 불확실성·달러 강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수급 혼란이 겹친 단기 기술적 조정으로 분석.</li> <li>- 투자자 예탁금이 나홀 새 12조원 이탈하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말 92조원에서 2주 만에 38% 급감.</li> <li>- 반면 빚투(신용융자) 잔고는 38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 6/8 하루에만 1,662억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등 레버리지 리스크 노출.</li> </ul> <p><b>(6/12) 금감원, 증권사 감사 소집... "해외투자 중개·마케팅 과열 우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이 증권사 감사들을 소집해 해외주식 투자 중개 및 마케팅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전달.</li> <li>- RIA(해외주식 타사 이전 서비스) 경쟁 가열, 서학개미 대상 공격적 마케팅 등이 불안전판매·과당경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동시에 금감원은 증권사 해외투자 중개 과정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li> <li>- 최근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매수가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해외투자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li> </ul>	<p><b>변동성은 베타 높은 증권주에 양날의 검:</b> 급락락 장세는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측면에서 거래 활성화 기회이나, 예탁금 이탈·거래대금 급감이 동반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빚투 38조 사상 최대는 신용이자 수익 기반 확대를 의미하나, 증시 조정 시 반대매매 또한 존재함에 유의 필요. 베타가 높은 증권주 특성상 시장 급락 국면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이번 주 언더퍼폼으로 재확인. 단기 변동성보다는 수신 경쟁·자본 재배치 등 구조적 펀더멘털 개선에 초점을 둔 중장기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p> <p><b>해외투자 마케팅 규제는 단기 영업 제약 요인:</b> 불안전판매·과당경쟁 리스크 관리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증권사 WM 사업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나, 단기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확대 전략에는 일부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매수가 10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된 점은 해외투자 수요 둔화 신호로, 국내 증시로의 자금 회귀 트렌드에 부합. 해외투자 중개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일수록 규제 강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수익원 다변화 정도에 따른 차별화에 주목.</p>
보험	<p><b>(6/12) 도수치료 7월 1일 관리급여 전환 확정...회차 4만 3,850원·연 15회 제한, 본인부담 9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6월 4일 건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최종 의결, 7월 1일 시행 확정.</li> <li>- 회차 수가 4만3,850원(30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가산 없이 전국 동일 적용.</li> <li>- 연간 15회(수술·골절 등 특정 질환 시 24회)로 제한되며 본인부담률 95% 적용. 기존 비급여(연 50회·350만원 한도)에서 횡수·가격이 동시 통제.</li> </ul> <p><b>(6/12) 환율 1550원대 출렁...중소형 보험사, 환해지·K-ICS 부담 가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로 급등하며 보험사 외화자산 운용에 부담 가중. 금감원이 보험사에 '해외 신규투자·환투기성 외화포지션 확대 자제'를 권고.</li> <li>- 보험사는 외화자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 환해지를 운용하나, 금리차 확대에 환해지 비용(스왑 코스트)이 상승하며 신규 해외자산 편입의 실질 수익률이 저하.</li> <li>- 외화자산 규모가 작아 완충 장치가 적은 중소형사일수록 K-ICS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li> <li>- 환율 100원 변동 시 대형사 K-ICS는 1%대 변동에 그치나 일부 취약사는 두 자릿수 변동.</li> </ul>	<p><b>비급여 1위 항목이 사라진다, 실손 손해를 구조적 개선:</b> 도수치료는 작년 실손 지급보험금 중 근골격계 질환(2.7조원)의 핵심 항목으로 비급여 1위 규모, 관리급여 전환은 실손 손해를 악화의 최대 원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호재로 판단. 본인부담 95%·연 15회 제한·선행치료 요건의 3중 통제로 도수치료 남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 7월 시행 시점부터 실손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선행치료(2주·4회 단순 재활) 요건은 단순 통증 목적의 도수치료 진입 자체를 억제하는 강력한 장치로, 가격·횡수 제한보다 실질적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주목. 5세대 실손 출시와 맞물려 손보사 실손 부문 CSM·손익 개선이 2H26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손보 업계에 증기 긍정적 모멘텀으로 판단.</p> <p><b>환율 변동성은 중소형사 자본 부담으로 차별화:</b> 환율 1,550원대 급등은 대형 보험사의 경우 100% 환해지 원칙으로 K-ICS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외화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에는 자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본 적정성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환해지 비용(스왑 코스트) 상승은 신규 해외자산 편입의 실질 수익률을 저하시켜 운용수익 측면의 부담으로 작용, 글로벌 금리차 추이에 따른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 금감원의 환투기성 포지션 자제 권고는 보험사 해외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를 시사,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운용 전략 재점검이 요구. 환율 변동에 견조한 대형 보험사 대비 취약 중소형사의 K-ICS 관리 부담이 가중되며, 자본 확충 필요성이 M&amp;A 매물화로 이어지는 업권 재편 흐름과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p>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 1.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6-15 (월)		미국 5월 산업생산 미국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미국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일본 4월 3차산업지수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
2026-06-16 (화)	5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4월 통화 및 유동성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5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미국 5월 수출입물가지수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6월 ZEW 경기기대지수 중국 5월 주택가격지수 중국 5월 실업률 중국 5월 산업생산 중국 5월 고정자산투자 중국 5월 소매판매 중국 5월 외국인 직접 투자
2026-06-17 (수)		미국 FOMC 회의 발표 미국 5월 소매판매 미국 5월 잠정주택판매지수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4월 기업채고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영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4월 핵심기계류수주
2026-06-18 (목)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미국 6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5월 경기선행지수 유로존 4월 경상수지 영국 BOE 기준금리결정 영국 4월 실업률 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결정
2026-06-19 (금)	5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증시 휴장 독일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영국 5월 공공부문 순차입/순상환 영국 6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5월 소매판매 일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자료: 삼성증권

###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6,450.0	8,123.6						(0.5%)	3.6%	178.2%	92.8%
	KRX은행	203.0	1,583.6						(2.9%)	3.0%	46.9%	21.5%
	KRX증권	84.6	2,458.0						(3.4%)	(15.1%)	95.9%	60.7%
	KRX보험	136.2	4,180.0						0.9%	20.5%	80.5%	56.1%
	결제 지수**	1,335	n/a						(0.3%)	(10.5%)	25.0%	1.7%
은행	KB금융	57.2	161,200	57.1	1.0	11.4	8.8	12.9	(6.1%)	6.1%	52.2%	29.3%
	신한지주	47.3	99,600	53.6	0.9	10.4	8.5	15.5	(7.3%)	4.6%	70.0%	29.5%
	하나금융지주	33.2	121,000	50.8	0.8	10.6	7.5	12.3	(2.1%)	(1.1%)	56.7%	28.6%
	우리금융지주	22.9	31,150	44.5	0.7	10.6	6.5	12.1	(0.2%)	0.0%	51.6%	11.3%
	기업은행	17.4	21,800	36.0	0.5	8.5	6.7	2.2	5.6%	4.8%	30.4%	4.1%
	BNK금융지주	5.5	17,670	45.1	0.5	8.3	6.2	9.5	2.5%	2.8%	49.5%	11.3%
	JB금융지주	5.0	26,700	42.2	0.5	9.5	5.3	21.9	3.7%	7.9%	27.8%	4.1%
	iM금융지주	2.8	17,700	51.8	0.8	13.2	6.7	6.6	0.0%	(2.9%)	54.0%	13.8%
카카오뱅크	11.3	23,750	50.0	1.5	8.8	18.3	29.1	3.0%	7.7%	(16.7%)	10.0%	
증권	미래에셋증권	29.3	52,300	40.5	2.0	18.2	15.2	72.9	(7.3%)	(28.3%)	172.9%	125.0%
	NH투자증권	11.3	31,750	45.7	1.3	12.6	11.1	19.4	0.0%	(5.4%)	74.8%	50.5%
	한국금융지주	13.4	240,500	22.4	1.1	20.0	6.4	23.6	(2.4%)	(4.4%)	97.0%	48.7%
	키움증권	9.5	363,500	22.6	1.6	22.6	7.8	44.7	(0.1%)	(11.4%)	84.5%	25.6%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8.2	108,900	50.0	1.7	22.8	8.2	14.9	1.5%	2.3%	(2.9%)	(3.7%)
	삼성화재	29.2	654,000	45.1	1.0	10.1	10.9	12.0	(5.9%)	31.3%	49.0%	31.6%
	삼성생명	77.1	385,500	46.3	0.6	3.7	15.9	17.8	(6.5%)	26.0%	214.4%	144.6%
	DB손해보험	9.7	148,200	32.3	1.1	16.6	6.6	9.0	4.1%	(7.8%)	24.7%	13.0%
	한화생명	4.3	4,970	16.4	0.3	5.6	6.3	37.8	3.9%	(0.2%)	50.8%	52.7%
	현대해상	3.3	39,250	11.7	0.5	17.5	3.3	18.3	9.6%	29.8%	49.8%	27.4%
결제	카카오페이	6.0	44,650	n/a	n/a	6.9	47.6	180.2	(1.3%)	(12.6%)	(21.3%)	(9.1%)
	NHNKCP	0.6	15,040	n/a	n/a	17.9	10.4	28.8	(6.0%)	(20.3%)	64.9%	0.9%
	KG이니시스	0.3	10,130	n/a	n/a	7.1	4.9	9.9	5.4%	(2.5%)	0.1%	(0.9%)
	KG파이낸셜	0.2	4,245	n/a	n/a	10.3	5.3	12.1	4.7%	(5.9%)	(19.4%)	(9.7%)
	나이스정보통신	0.3	29,050	n/a	n/a	9.1	4.8	39.4	4.5%	5.1%	30.6%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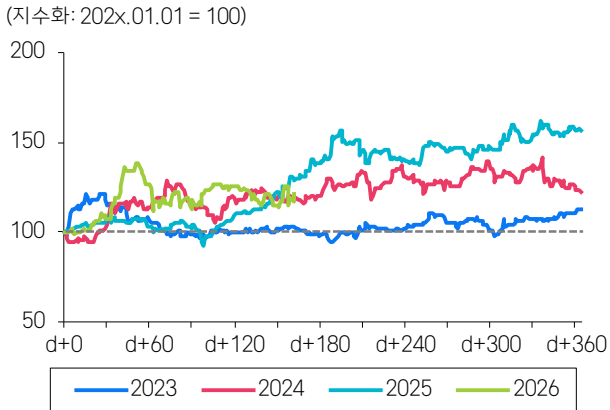
참고: 6/12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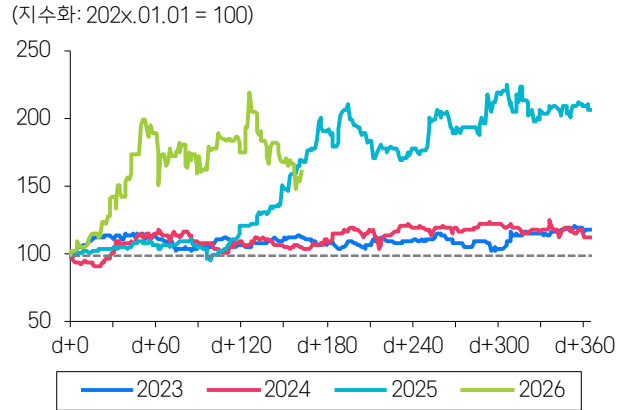
###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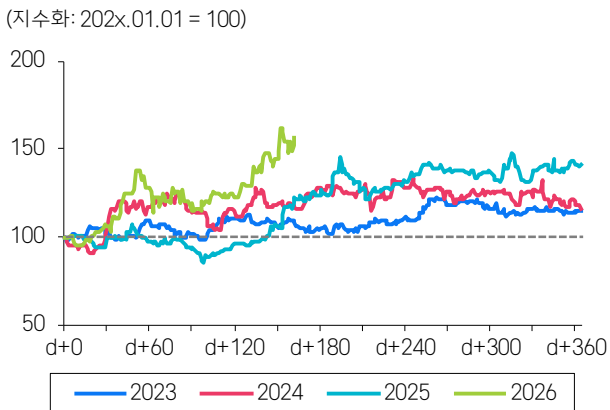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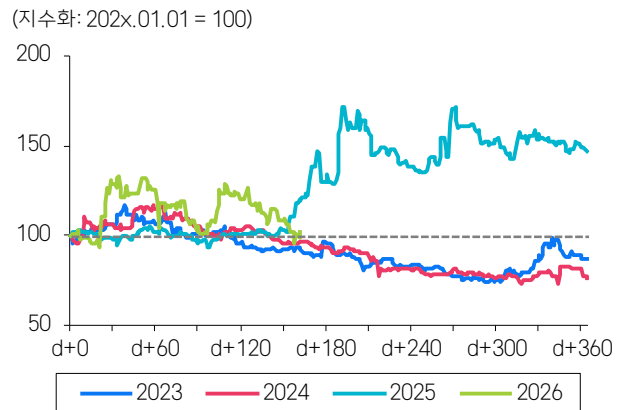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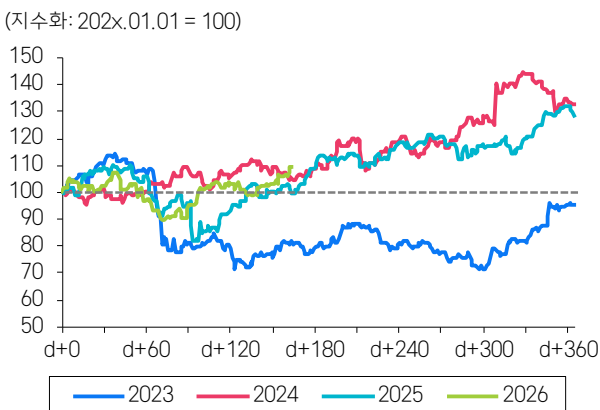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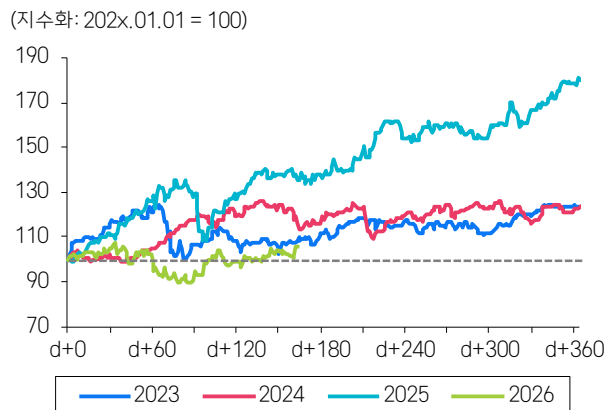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59.4	80.2	2.4	17.1	14.4	11.5	2.7	6.9	21.0	(0.5)
		Bank of America	397.6	103.1	1.4	11.7	12.5	17.6	4.1	12.4	27.1	1.9
		Citigroup	238.5	115.3	1.2	9.7	12.9	54.9	5.6	12.0	83.1	19.8
		Wells Fargo	256.2	97.7	1.5	12.8	12.0	11.2	2.2	13.5	15.7	(10.2)
		PNC Financial	95.4	75.0	1.6	12.6	12.9	10.7	4.1	11.3	37.1	13.9
	유럽	Banco Santander	188.0	63.7	1.5	13.8	10.2	12.6	3.3	8.3	60.8	9.5
		Unicredit	128.3	81.4	1.6	17.0	9.6	8.0	0.2	2.9	30.5	3.4
		BBVA	131.4	89.0	1.9	19.3	9.8	16.4	3.5	6.4	55.1	0.2
		ING Group	88.0	85.2	1.4	13.3	11.0	9.0	(0.0)	2.3	45.2	8.9
		Lloyds	80.3	80.6	1.4	13.8	10.2	44.8	3.2	6.0	33.8	4.2
		Barclays	86.2	66.4	1.0	10.7	9.1	19.4	3.3	8.8	48.1	(0.7)
	일본	Mitsubishi UFJFG	234.6	52.4	1.5	11.6	13.5	9.6	(1.8)	8.0	63.5	26.8
		Sumitomo Mitsui FG	153.3	40.8	1.5	11.2	13.6	14.4	2.8	12.3	79.4	27.1
		Mizuho FG	115.5	48.6	1.6	11.7	13.7	9.9	(2.0)	9.4	94.2	32.7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90.2	30.5*	0.6	9.1	7.0	3.6	5.7	4.8	18.4	14.8
China Construction Bank		309.1	29.9*	0.6	9.6	6.8	2.2	3.0	2.3	17.7	16.8	
Agricultural Bank of China		344.8	30.2*	0.7	9.9	7.4	5.1	3.9	(0.7)	9.4	4.8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54.3	N/A	1.4	5.8	22.8	(30.9)	(0.2)	0.7	0.1	(3.0)
		AIG	40.2	84.2	1.0	10.2	10.5	흑전	0.3	0.0	(10.5)	(11.5)
		Travelers Insurance	64.7	83.5	1.9	18.6	10.8	3.1	0.4	2.1	15.6	5.0
	유럽	Allianz	170.6	80.8	2.3	18.4	12.5	11.5	3.6	3.2	13.1	(1.0)
		AXA	99.2	59.5*	1.7	16.0	9.8	(7.6)	3.4	4.3	(1.8)	(0.2)
		Generali	73.3	57.9*	1.9	14.2	13.3	12.6	6.1	6.6	33.6	15.2
	일본	Tokio Marine	88.6	46.7*	2.5	18.7	14.1	1.0	4.7	(3.2)	24.5	25.9
		Daiichi Life Insurance	39.7	56.9	1.5	11.9	13.2	10.6	5.5	8.4	63.7	34.5
	중국	Ping An Insurance	139.5	36.1*	0.9	14.0	7.1	5.4	0.4	(8.5)	19.8	(12.3)
		China Life Insurance	138.9	20.1*	1.2	18.4	6.8	(18.7)	7.6	0.8	68.3	10.0
		PICC P&C Insurance	44.1	38.2*	1.1	13.5	8.4	1.4	9.0	1.4	3.0	(5.0)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25.8	107.5	2.9	16.4	17.9	15.9	2.3	9.7	73.2
Morgan Stanley			337.6	72.5	3.1	17.7	18.0	16.3	1.0	10.0	65.3	20.6
Charles Schwab			163.1	96.4	3.4	23.4	15.3	28.3	2.5	1.9	4.3	(8.8)
Robinhood			84.0	43.3	8.0	17.3	49.6	(8.3)	13.0	15.5	28.4	(17.6)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22.1	77.7	6.4	35.1	18.4	14.9	4.8	4.1	13.1	(12.0)
결제	미국	VISA	622.3	21.4*	18.0	67.0	25.2	25.5	(0.4)	(0.0)	(8.6)	(8.1)
		MasterCard	433.0	18*	50.1	223.2	25.2	17.5	(0.2)	0.0	(12.8)	(14.2)
		PayPal	36.6	5.9*	1.8	23.3	8.2	(6.2)	0.6	(7.8)	(41.4)	(28.9)
	유럽	Adyen	30.3	0*	4.0	21.3	21.0	17.5	1.3	(7.0)	(50.0)	(39.8)
핀테크	미국	Block	41.4	0*	1.8	9.9	31.5	5.2	2.0	(2.8)	12.9	6.8
		Upstart	2.9	0*	3.5	19.1	33.7	100.9	2.6	2.7	(41.4)	(30.3)
		Affirm	22.2	0*	5.3	11.8	53.1	730.8	4.0	(2.1)	11.9	(11.1)
	중국	LuFax	1.2	N/A	0.0	(0.1)	N/A	흑전	(8.3)	(30.4)	(52.5)	(48.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6/12 종가 기준

\* 현금 배당 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 삼성증권

###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